책과 거실, 소비자 요구 부응

아파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한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제공_대림산업

올해 들어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서재를 콘셉트로 한 신 도면을 속속 공개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가 상승하면서 아파트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다. TV문화에 젖어 대화 부재를 겪고 있던 가족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족들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문화를 선호하는 것.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기존의 장식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가족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했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은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 이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공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판교 e-편한세상 분양 모델하우스는 서재와 거실 사이에 책꽂이 형태의 가변형 벽체를 설치, 거실과 서재를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천연 원목을 살려 자연 친화적 느낌까지 더한 가변형 벽체는 기존의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한 모델하우스에 식상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문화 수준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실을 차별화된 가족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킨 'Library House' (Book House)를 개발, 침실을 전변부로 배치했던 판상형 아파트와 대조적으로 '오픈형 거실' 을 선보였다. 폭 10m가 넘는 오픈형 거실은 한쪽 벽 전체를 빌트인 서가로 구성해 책을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했고, 주방의 식탁 또한 독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거실과 통합해 전면으로 배치했다. 이는 거실장의 위치와 콘센트 구성으로 거실을 서재로 꾸미기에 부적절했던 기존의 설계를 탈피하고 북 카페와 같은 여유 있는 공간 조성이 가능한 설계여서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간 활용을 위한 디자인은 흔히 넓은 평형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개된 모델하우스 역시 36평, 53평형, 71평형 등 비교적 넓은 평형이었다. 그러나 각 건설사들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작은 평형대의 아파트에서도 원하는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작은 평형일수록 조망권 확보에 대한 열망과 디자인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다. 생활수준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의 디자인을 맡은 경원대 마영범 교수는 "집의 공간을 디자인 할 때는 사람의 취향이나 개성,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공간의 변화는 〈조선일보〉의 연중 캠페인 '거실을 서재로' 와 같이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책꽂이 형 탁자와 실용적이면서도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코니 앞에 배치된 책꽂이 디스플레이.